누구에게도 담배를 필 권리가 있지만 누구라도 담배를 싫어 한다면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공공장소에 담배를 것은 그 한사람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에 피해를 줍니다. 특히, 버스나 전차 같은 좁은 곳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나도 역시 담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담배를 핀다면 나는 그 장소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담배는 또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공 장소 안에 흡연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정해진 곳에서만 피워야만 합니다. 회사, 레스토랑,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 흡연실을 꼭 만들어서 그 장소에서 피우도록 해야 합니다. 흡연실에서 피우는 것은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 광고를 텔레비젼에서 방송하는 것은 어린이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또 담배 광고를 텔레비젼에서 하지 않아도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담배는 우리에게 나쁘기 때문에 끊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대의 방법인 것 같다.